

주식회사 자광 안성공장 증축식... 세계적 기업으로 받돋움

본 협회의 이사사인 주식회사 자광은 증축식을 갖고 재도약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광은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을 바탕으로 천연물 신약, 신소재 개발 바이오기업으로 안성 제1산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10월 16일 안성 공장에서 열린 공장 증축식에는 각계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연예인 축구단 5스타스(단장 김상중)가 참석해 자매결연식을 맺음으로써 잔치분위기를 더욱 가열시켰다.

새로 증축된 공장은 연면적 2천평 규모로 HACCAP 기준에 맞추어 설계되었고 천연물 신소재개발에서부터 응용제품 개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주요 연구개발제품은 천연간암치료제, 고효율 약물전달체, 세포사 제어소재, 고효율 천연 대체의약품, 유전자 이상 방지시스템 및 소재 등이 있으며 연간 정제 8천만



개 및 캡슐 1억2천만 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공장증축으로 인해 자광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웰진 맞춤형약 개발의 선두주자 주식회사 웰진

21세기 첨단분야인 분자맞춤의약품은 생소한 감마저 든다.

(주)웰진은 독자적인 안티센스 및 센스 기술을 이용한 분자치료제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 인간의 장수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안정된 삶의 요구에 다양한 질환은 크나큰 위험인자로 등장하고 있다. 질환은 개인에 따라 발생원인과 진행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데 사이다.

(주)웰진은 독자적 안티센스 기반기술을 통해 대규모 유전자 기능분석과 분자치료제 개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첨단기업이다. 동사는 유용유전자의 선전적 확보와 대량의 맞춤 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1) 디지털화된 안티센스 분자 치료제 개발 (2) 대규모 유전자 직접적 기능분석 (3) 고효율의 치료 유전자 전달 시스템의 개발 (4)벡터에 기반을 둔 센스 분자 치료제 개발로 암, 조직 경화증 (간, 신장 등), 비만, 탈모 등의 난치성 질환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치료제 후보군을 확보하여 동물실험 중에 있다. 유전자 기능분석 분야에서도 간 및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대한 대규모의 기능 분석을 통해 이들 질환에 대한 다수의 유전자를 확보한 상태이며, 약 5만 종류의 인간 유전자 안티센스 라이브러리를 구축완료하



였다.

자체적으로 대규모 유전자 기능분석과 더불어 2003년 중에 전세계의 다국적제약, 바이오 기술기업, 그리고 대학연구실 등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치료 유전자 전달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기존의 어떠한 전달 시스템보다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에 시제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주) 웰진은 2002년 3월에 400평의 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첨단 중양실험실, 무균 합성 및 정제실과 무균 동물실험실(SPF시설)을 갖추어 따라 치료제 개발 시기를 앞당기면서 본격적인 맞춤의학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주식회사 아이디진

미국 엑시제틱스의 기술 라이선스 협정

바이오펀처기업인 (주)아이디진이 미국의 관련업체에 특허 기술 수출 계약을 지난 10월 28일 체결하였다.

아이디진은 유전자감식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이며 지문에서 유전물질인 DNA를 추출하는 기술로 2002년 4월에 미국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미국의 IT 기업인 엑시제틱스에서 이 기술의 독점적 사용권을 계약금 100만 달러(약 12.5억원)와 2년 후부터는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고 인수한 것이다. 1인의 샘플을 채취할 때마다 \$1.05 씩 로열티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매년 600만명 정도의 용의자가 미국 경찰에서 지문을 찍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액수의 로열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엑시제틱스는 광학적으로 지문을 인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미국 FBI 및 각 주의 경찰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아이디진의 지문 DNA 추출 기술을 병합함으로써 외형적 지문 뿐만 아니라 DNA의 지문까지 동시에 분석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아이디진의 지문 DNA 추출 기술은 미국 경찰이



용의자들의 샘플을 인체를 침투하지 않고 용이하게 채취할 수 있게 하여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디진과 엑시제틱스의 기술 협약은 한국의 바이오 벤처기업이 미국에 처음으로 기술을 수출하였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BT(바이오 기술)가 IT(정보통신기술)와 절묘한 융합을 실현한 좋은 예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주식회사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수익기반 확실한 인프라 바이오벤처 기업

생명과학 벤처기업인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는 1984년 회사를 설립하여 생명과학 연구용품을 공급하는 확실한 수익구조와 국내 최고의 마케팅 조직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하여 다범위 유전자 진단키트인 'SRILS UniPrimer Kit TM' 류 및 고기능 단백질분해효소인 'SERINASE TM' 등 첨단 생명과학 제품 등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으며, P.I 개념의 생명과학 연구용 기기인 'MyLab TM' 시리즈를 개발하여 국내판매 및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유전자조작 DNA 영상촬영장치, 전기영동장치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명공학 첨단 장비인 MEMS 기반의 Bio-Chip 분석장치 'GENESCAN TM'을 개발하여 올해안으로 시판을 앞두고 있는 등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의 연구실 및 바이오벤처기업에 투자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신제품 개발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추진하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하

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와 개발제품의 산업화 및 국내 유망벤처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생산시설의 확충등에 투자하여 생명과학의 최종 목적인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계적인 생명과학 전문회사로 발돋움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다.

당사는 지난 해 104억원의 매출 실적과 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며, 2002년도에는 약 130억원의 매출 및 20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바이오 벤처 탐방